

# “26년간 이어온 군장병 격려” 부영그룹, 추석 위문품 전달

## 장병 노고 격려 위해 육·공군 5개 부대에 과자 2,500세트 선물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1조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추석을 맞아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육·공군 5개 부대에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2일부터 육·공군 군부대 5곳(육군 1군단, 육군 22·25사단,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과자 2,500세트를 선물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10만3천여 개에 달하는 위문품을 전달하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금액만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른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추석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며 “감사함을 담아 준

비한 이번 선물이 장병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이 같은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이종근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 회장은 직접 설립한 우정문고를 통해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의 날과 전황, 국내외 정세 등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한 우정체 형식의 역사서『6·25전쟁 1129일』을 출간하며 역사에 대한 투철한 안보사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과거 군 입대 당시 186cm의 장신으로 인해 항공병학교에서 불합격할 뻔 했으나 군 생활 5년 반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대가에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지난 2023년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목숨 바쳐 우리를 도와준 참전군 용사들을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



부영그룹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기증식

에 참전비 건립비용을 지원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하고 추모하기 위해 유엔데이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 또한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기적 위문 활동을 하

고 있다. 실제 이번 위문품 수령 부대 중 하나인 22·25사단과 1997년 첫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미사일사령부, 육군1군단 등과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민·군 협력 관계를 공고히 이어오고 있다.

오권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회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19일, 22일 이틀 간,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대강당에서 지회 회원들과 노인대학 수강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비롯하여 연명의료의 중단·유보 결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대리 결정 제도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 접

어든 어르신들이 임종기 의료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과·임플란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의료비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장은 “막연했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도가 향상됐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선택권이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는 점이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영암기찬시니어합창단, 감동의 10주년 기념연주회

### 10년 노래로 울고 웃어온 마음 담아 200여 영암군민에게 하모니 선사

영암기찬시니어합창단(단장 이철)이 20일 한국드림아트센터에서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

60세 이상 어르신 34명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2016년 합창으로 인생의 활기를 찾는다는 취지로 창단했다.

“시간을 노래하다 : 10년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는, 고정 지휘자, 정미혜 피아노 반주로 진행됐다.

특히, 10년간 노래하며 울고 웃어온 합창단의 마음을 담아 공연장을 찾은 200여 영암군민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반달’ ‘담쟁이’ ‘아리랑&애국가’, ‘모두다 꽃이야’ ‘젓가락행진곡’ 등 한국한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이번 기념연주회는 달빛소나타합창단과 한국음악협회 영암군지부가 함께해 어르신들의 공연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하모니가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기찬시니어합창단처럼 어르신이 주인공으로 나서 영암군민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장이 많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영암기찬시니어합창단은 영암군의 60세 이상 남·여 단원을 상시 모집(문의: 061-470-2151) 중이고, 10월 개최되는 '제9회 전라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에 영암군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한빛원자력본부,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지원

### 영광군·고창군에 총 2,496만 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6일(화)과 18일(목) 영광군·고창군에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였다.

한빛본부가 이번에 지원한 생필품은 지역 쌀을 비롯해 13개 품목 총 2,496만 원 상당으로, 해당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영광군과 고창군 상하면 312세대에 전달하였다. 16일 영광군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김성면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한빛본부의 정 나누기 활동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세일 영광군수는 “한빛원자력본부의 꾸준한 나눔과 지원 덕분에 마음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보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지역 공공기관들과 쓰담쓰담 캠페인 합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9월 22일 광주광역시 소재 수완1저수지에서 직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저수지 쓰담쓰담(쓰레기 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쓰담쓰담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수변길의 쓰레기를 담는 플로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토대청결운동인 '대한민국 새장단'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되었다.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 ESG 실무협의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한

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공동 참여하였다.

세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공기관 ESG 실무협의체는 올해 3월에 구성되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플로마켓(더 착한마켓)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공공기관 합동 쓰담쓰담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읍진강기차마을